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단주·빵에 母情담아 … "어머니 고맙습니다"

군포교 자원봉사단 심우회
'신병 훈련소 가던 날'

◇"이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나. 꼭 차고 다녀." 한 회원이 훈련병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기 전에 군법당에서 법회를 본 다음 보시함에 정성을 담았다.

'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내 '춥고 배고픔'이란 단어가 뒤 따른다. 거기에다 '훈련병'이란 단어까지 겹쳐지면 '서러움'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구타나 기합도 많이 줄어 들었고 먹는 것도 일반 가정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병들이 군대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여전히 춥다. 군대가 바뀐 것보다 사람은 더 바뀌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7시 30분. 간밤의 어둠이 아직 웅크리고 있을 때 심우회(회장 이춘심) 회원 30여명은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에 주차된 버스로 속속 모여들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불자 40여명이 뜻을 모아 조직한 심우회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00부대 신병교육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모두 도착하자 버스는 이내 화천으로 향했다.

강원도 험준한 비탈길을 돌고 돌아 버스가 도착한 곳은 00부대 체육관. 매서운 바람이 먼저 회원들을 맞았다. 잠시 후 몸과 마음이 다 꽁꽁 언 듯한 훈련병들이 굳은 얼굴을 하고 줄을 맞춰 한 무리씩 들어오고 있었다.

법회가 시작되자 250여명 참석자들은 체육관 단상에 모셔져 있는 30cm 남짓한 '야전불상(불감 형식의 금동빛 나는 부처님)'에다 합장 반배를 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형상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허리를 굽혀 정성스레 절을 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이 끝나자 정인성 법사는 단상으로 올라가 법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우주의 생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이 모여 하나의 점이 되고 선이 됩니다. 전방에서 26개월 군 생활도 마찬가집니다. 매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새 여러분들도 전역을 하고 의젓한 사회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정 법사의 법문이 끝나자 심우회 권영호 부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권 부회장은 먼저 훈련병들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저도 군생활을 화천에서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남 같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군 생활을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법당 좁아 체육관에서
30cm크기 불감 모시고 법회
합장주 주며 "꼭 몸에 지녀라"

사홍서원으로 법회가 끝나자 회원들은 가지고 온 빵과 음료수를 훈련병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빵을 받은 훈련병들은 음료수도 받기 전에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4~50대 주부 회원들은 자식과 같은 훈련병 한명 한명의 컵에 음료수를 부어주며 끝없이 반복한다. "목 막힌다. 음료수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라."

또 다른 회원들은 합장주를 나눠주며 "이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으니 꼭 차고 다녀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 그대로다.

법회에 참석한 훈련병들의 관심이 부처님께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빵과 음료수가 더 절실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결핍감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그리워서 어머니의 살냄새가 말고 싶어서, 불교가 뭔지 불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참석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30cm 정도의 '불상(불감 형식의 금동빛 나는 부처님 · 아래 사진)'을 모시고 법회를 보는 훈련병들.

1인당 빵 하나와 음료수 한 컵이 돌아가고 난 뒤 한 회원이 '빵 더 먹을 사람'을 외치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여기요 여기요'를 외쳤다. 몇 개 더 나눠주지만 이내 동이 났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 지켜보는 사람의 가슴에도 휑하니 찬바람이 지나간다.

작별은 언제나 서툰 법이다. 겨울해는 짧고 돌아갈 길은 먼 심우회원들도, 한 순간 어머니의 품을 느꼈던 훈련병들에게도 작별은 또 다른 그리움을 남긴다. 떠나가는 이들을 향해 훈련병들은 한 목소리로 외친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화천=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훈련병 포교 자대까지 이어져

목련존자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는 병사 많아

군법사 12년째 정인성법사

"훈련소에서 처음 종교를 접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또 훈련소에서 접한 종교가 자연스럽게 자대까지 이어집니다. 20년 이상 부모님들과 함께 있다가 훈련소라는 낯선 공간에서 힘들어 할 때 접한 종교는 제대 후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군 법사 생활 12년 째인 정인성 법사는 훈련병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교 차원이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종교생활을 하면 정신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돼 국방부에서도 장려를 한다고 한다.

정 법사는 훈련병들에게 기간병과는 다른 설법을 한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훈련병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법문보다는 절은 왜하며 그 방법은 어떠한지, 사찰을 참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특히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훈련병들에게 많이 들려준다.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가 생전의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받고 있던 어머니를 위해 1천 2백여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독경과 목탁을 친 '우란분재'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눈물을 흘리는 훈련병들이 많습니다."

정 법사는 훈련병들의 가슴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고 한다. 또 심신이 피곤한 훈련병들이 법회에서 졸아도 모른 척 넘어간다. 법당에서라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군 포교는 '1사찰 1군법당 결연 사업' 등으로 예전보다 많이 낳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회 볼 군법당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불자들의 조그만 관심이 '큰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02-725-5233(군불교위원회), 02-578-2525(심우회)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